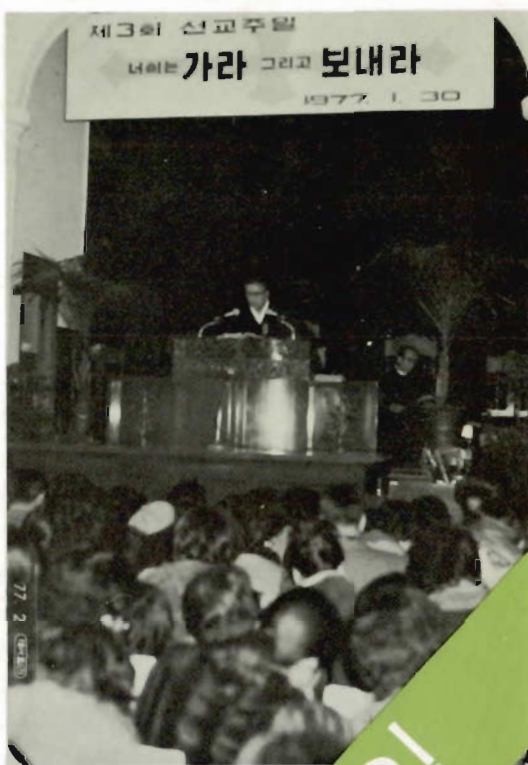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6 월호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이달에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현충일과 6.25사변일이 있다.

전자는 애국선열 순국지사들을 추모하면서 나라를 위한 심정을 고취시킨다는 의의가 있겠고, 후자는 불의한 공산집단에 의하여 저질러진 동족상잔의 비극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가질만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과제를 앞두고 나라에서는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사상과 이념교육의 실시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남다른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첫째는 신자들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둘째는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부여잡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인류의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와 민족의 죄짐과 멍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이어야 한다는 말은 외람된 말이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진정한 비결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적이 누구인지 또 그 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세상은 진정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의 적이 내일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련의 이억오천만 인구 중에 공산당은 천철크만(6.8%)에 불과하고 93.2%가 선량한 백성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적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고 그 적을 이기는 길을 제시한다.

오히려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철의 장막보다 최악의 장벽일수 있으며, 양성적 불신사상보다 음성적 불신사상이 더 위해할 수 있다.

온 세계가 점점 좁아져 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의 불신과 최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아무리 온 세계가 한 사상과 체제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자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높이들고 빛의 사명을 다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에 유감없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때가 바로 이때 인듯 싶다.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전신갑주를 입고, 주신 역사, 천국일군양성·북한선교·민족복음화·세계선교·성전건축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더 큰 문과 길을 열어 주실때 주저함 없이 달려 나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6호 통권111호

1983년 6월호 차례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6월호

○권두언/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주 간 · 2
○이달의 말씀/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시다	김창인 · 4
■특집 I / 6·25와 북한선교	홍치모 · 6
우리는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대천덕 · 9
●특집 II / 새성전 시대의 전도와 선교	오치용 · 13
◎군목연구 발전회의 보고/군전도는 민족복음화	박동실 · 16
□이사야서 강해⑨/말일에 될 일이 무엇이나	김창인 · 18
□십계명 강해/제5, 6, 7계명	이종운 · 22
□찬송가 감상과 해설/어머님의 기도	김창근 · 21
□이달의 시/죽음이 아니나라	-영- · 27
□교사일기	이성은 · 27
□신앙일고/신앙의 보수와 교리	편집실 · 28
□목회일기/민족복음화로 가는 길목에서	김동렬 · 30
□신앙단상/풍성한 삶을 위해	최정길 · 31
□신앙묵상/자아에 대해 죽는 것	32
□라성 충현교회의 앞으로의 사명	충현세계선교회 · 35
○신간안내	28
○편집실 광고	28
○독자의 편지	29
○생각해 봅시다	31
○선교사·선교지 소식	33
○5월의 행사 편집후기	38
○교회소식	36
○교우동정	37



표지해설

복음으로 북진통일을 위한
십자가의 정병으로써
신앙무장을 하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 100 : 3)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김 시다

우리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합당하고 정당한 입장에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 물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율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타율자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애써 만든 물건이 주인에게 손해나 되면 그 물건은 필요없다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면 어찌 하나님의 벌을 면하겠느냐 말입니다. 고로 그 하나님과 피조물된 나와서 관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임금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시편 100편 3절

하나님은 임금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욕심이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까? 어떤 세력이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까? 어떤 돈많은 사람이 나의 생활을 지배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탈선하는 걸음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양심과 나의 인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생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마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굽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금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김 창인목사
(당회장)



3. 하나님은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러 주시는 양입니다.

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양은 선한 목자가 그를 인도해 줄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양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원수가 해칠 수 없는 보호를 받으며 길잃어 버릴 염려없는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영육이 아울러 모자랄 것이 없고 오히려 남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는 자에게 길이 막히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아십시오.

-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니,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니, 백성의 입장에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공경함이 옳습니다.
-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니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와 북한선교



홍 치 모
(총신대학교수)

I. 상기하여 보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우리들의 잠을 설치게 한 포성은 우리 민족의 피를 흘리게 했던 동족상쟁의 비극의 신호였다.

6.25는 남북 합쳐서 약 500만의 군인과 선량한 백성들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 이 전쟁은 거의 3년 동안에 아랍다웠던 금수강산을 여지없이 황폐케 하였다. 남한에 북괴군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던 곳은 부산부근과 제주도 뿐이었다.

6.25 33돐을 맞은 오늘, 40세가 되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잘 모른다. 잠시 당시의 전쟁일지를 더듬어 보면, 6월 25일 이른 아침,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탱크를 앞세운 북괴군이 남침을 시작하였다. 우리 국군은 이렇다 할 무기나 장비도 없이 맨 주먹으로 적과 싸우기를 사흘, 그러나 결국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드디어 6월 28일 북괴군은 서울을 점령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을 듣고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 것으로 믿고 남아있다가, 새벽에 끊긴 한강교를 바라보며 한강 기슭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헤매고 있었다. 한편 일단 후퇴한 국군은 수원에 집결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적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그 동안 하나님께오시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여러나라들을 감화감동 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돕게 하셨다. 그리하여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북괴군과 처음 마주쳐 싸우기 시작한 것은 평택부근이었다. 이때부터 8월말까지 적의 보급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서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다. 이 때에, 일부 교회지도자들은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다시피 하며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사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지장(知將)이요 용장이었던 맥아더 장군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적의 허리를 자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것이 곧 9월 15일에 감행되었던 국군과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그후, 십여만일인 9월 28일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이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던 서울 탈환 기념식에서 <주기도문>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케 할 뿐아니라 눈시울을 뜨겁게하는 감격을 주는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후 국군과 연합군은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여 10월 8일에는 38선을 돌파하였고, 10월 18일에는 평양을 탈환하였고 11월 하순에 압록강까지 도달하여 마치 남북이 통일되는 듯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차례의 겸손케 하는 시련을 주셨다. 그것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후퇴였다. 11월 27일 60만 대군으로 편성된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12월4일에는 평양에까지 남하하였다. 1951년 1월4일에는 또 다시 서울을 적에게 넘겨 주는 쓰라린 경험을

이때 맥아더 장군이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던 서울 탈환기념식에서 <주기도문>을 읽었다

하게 되었으나, 3월 14일 국군과 연합군이 재탈환하였다. 다시금 북진하고 있을 때, 뜻밖에 적은 휴전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이때부터 전선(戰線)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의 능선>과 백마고지 싸움에서 양측은 일진일퇴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계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식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말았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준 비극과 참화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교회가 받은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많은 순교자를 낸 것도 이때였다.

II. 순교자들

북괴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남한각지를 점령하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고위관직자, 교수 그리고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색출하여 체포하는 일이었다. 북괴는 이들을 색출체포하여 구금해 두었다가 국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전에, 이들을 절박한 채로, 북으로 압송하였는데 어떤 이는 이 행렬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행진은 서울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만포진과 중강진에 이르는 험준한 산길을 여름 옷을 입은 채로 끌려 갔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비인도적인 북괴의 만행은 당시 끌려갔던 납치인사 중 한 사람이었던 조철씨가 1960년 초, 탈출에 성공하여 <죽음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남북된 인사들의 북한생활기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므로써(1962.3.29~6.14) 그 곳에서의 참상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는 비교적 교회지도자들의 고난 당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북괴는 미처 피난가지 못한채, 서울에 남아있던 목사들을 포섭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부터 김창준과 이만규 목사들을 파송하여 설득에 나섰다. 이때 김옥, 최문식등이 앞장서서 기독교민주동맹을 결성하여 김일성을 지지하는 쉼기대회를 열었다. 특히

북괴는 지도급 목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종교인들은 제3진에 편입시켜 1950년 8월 말, 발전한 평양과 북한을 시찰시킨다는 약속과 그것이 끝나면 즉시 돌려 보낸다는 조건하에 북쪽으로 끌고갔던 것이다. 제3진으로 끌려간 종교인들은 거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들로써 그 수는 약 50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송창근박사, 남궁혁박사, 김영주목사 외에 15명의 장로교 목사가 있었고, 감리교 목사로서는 김유택, 양주삼감독과 방훈목사 외에 16명, 그리고 성결교회 목사로는 박현명목사와 이견목사 외에 7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국군과 연합군이 계속 북진함에 따라 1950년 10월 18일 이후 산수갑산 쪽으로 다시 끌려 갔는데, 이때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다 한다. 북괴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길가에서 전원 사살할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한다.

납치된 목사들이 평양에서 영변을 거쳐 강계에 이르는 동안, YMCA에서 일을 보시던 구자옥선생은 남북 행진 도중에 숨을 거두었고, 남궁혁목사, 송창근박사는 중태에 빠져서 북괴군에 업히다시피 끌려갔다고 한다. 1950년 12월 10일경 만포진에 도착했을 때, 김창준이 기독교 민주동맹 위원장의 자격으로 다시 나타나서 설득하려다가 송창근 박사의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송박사가 「이 반역자야 나가라!」고 외쳤다고 한다.

1951년 봄이 되자, 납치된 목사들을 뿔뿔이 격리시켰다. 그 중 30명은 평양시에서 떨어진 문성리에 재수용시켰는데 1951년 9월 송창근박사는 그 곳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마을사람들이 관도 없이 시체를 그냥 매장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30명 중에서 한 사람씩 어디론가 연행되어 가고 남은 사람들은 1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북괴의 끈적진 설득에도 굴하지 않았다. 1954년 부터는 한 사람의 돌보는 여자(스파이를 겸함)를 붙여서 민가에 살도록 하였다. 이 여자들 중에는 목사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소지품을 팔아서 고기국을 끓여 드렸다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운동부터 일으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이야기도 있다.

1958년 3월 오택관, 송대용, 박상건, 남궁혁 목사는 서평양에서 자강도(산수갑산이 있는 지역)로 이송되어 강제노동수용소로 압송되었다. 이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목사님들은 원인 모른채 죽거나 노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 죽은 분들이 대다수이었다.

6·25는 확실히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색해 보아야 한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백만의 생명을 빼앗아 간 6·25사변은 분명히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지른 죄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아직도 철저히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고 자처할 수 없다. 더구나 요즈음의 교회의 자화상을 그려 보더라도 결코 낙관만을 할 수 없다.

버려진 북녘 땅과 그 곳에 살고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할 일(사명과 사업)이 실로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우리의 과제 - 북한선교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기어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고 있다. 다시금 필요한 과업은 하나님께 계속적인 기도를 합당하게 올리는 일이며, 잊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는 다른 어느 국가의 교회보다도 북한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북한과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에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대열을 정돈하고, 자체를 정화시키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운동부터 일으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참조: 이러한 운동은 북한선교 특공대에서 시작하고 있다)

둘째,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북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동원하여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면,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 사랑을 뼈속 깊이 체험한 성도라야 하며,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확고히 믿는 사람
- 북한동포를 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 자기의 세대에 어떤 바람직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서, 한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 개인적 영웅심에 사로 잡히지 않고 묵묵히 북한의 동포와 더불어 끝까지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 변론을 좋아하기 보다는 사랑과 봉사와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이상의 다섯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조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안될 경우, 고요한 골방이나 굴 속에 들어가 북한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은 비극과 대화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러나 복음은 화평과 사랑과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힘이다. 6·25 33돐을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북한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영역을 잡절이나 배양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파숫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야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사 21 : 11~12)

이 글월은 대 천덕 예수원 원장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중에서 발췌한 것이며, 『신앙계』社에 5월13일 전화로 허락을 받아서 게재한 것이다.
이 글월의 형식은 세연이라고 하는 형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누군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차츰 변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연 형제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의 질문은 벌써 오래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야 될 문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러나 누군가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차츰 변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근 공산권 선교를 주도하는 '오픈 도어스'에서 발행되는 책자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려는 이 사역을 감당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사가 42장 9절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는 말씀대로 변화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공의 경우도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북한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북한에도 비오듯 쏟아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을 증거라도 해주든 나는 북한 방문에서 이전의 방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느꼈습니다. 즉 이전에는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억압감

을 항상 느꼈는데 이번의 방문에서는 분명히 속일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어디를 가거나 간에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변화로 나는 지금 북한이 꼭 중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주는 우방 국가를 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북한이 이렇게 팔을 뻗어 외부와 접촉을 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 진영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즉 북한 당국이 천국이라고 선전한, 메달라 빠진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동안 당신이 드렸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증거이며 당신에게 큰 힘을 얻게 해주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효과 있는 기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린 북한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중공에서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그곳에도 일으켜 주실 것을 또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은 마음을 다하여 울며 회개함을

교회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긴 귀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과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회개를 좇아서 일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방인이나 악한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 속에 두며 죄악의 거처는 것이 있을 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아닌지?)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분이시며 한 몸이시며 그리고 한 몸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을 무시했던 교회의 잘못과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경제문제와 토지 소유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어긴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중략〉…… 12개국의 기독교 국가가 회교도화되었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토지법을 위반하고 지주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때 교회는 방관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고한 고집일랑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예통해 합시다. ……〈중략〉……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앗수르와 바

벨론을 일으키셨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도 회개하였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와 회교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의 완악함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서서 회개합시다. 만약 남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나 회개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마음의 우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잘 나가며 하나님을 핑장히 공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교만한 생각으로 꽂 차 있습니다. ……〈중략〉…… 그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그들의 모든 가치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위주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와 같은 인본주의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의 교회는 한국교회보다 훨씬 인본주의적이고 사치성도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결국 주님 품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곳곳에 있는 우상들이 없어지도록 통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마귀를 쫓는 공산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이고 열정적임을 봅니다. 거기에 비하여 믿는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성이 부족한 내 자신과 많은 교회의 독선적인 자만심을 놓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지도 가르치시지도 않으셨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귀신들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졌을 때 우리는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김 일성의 몸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쳤던 것을 회개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의 25퍼센트가 신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린 사치스럽게 생활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연히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 생각
해 봅니다.

코 그와 같이 잔인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그는 마귀를 황야나 돼지에게 보내셨지 인간에게 보내진 않았읍니다. 만약 김 일성이가 더욱더 잔인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잔인함과 증오심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참고 기도하며 용서를 빌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할 것이나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치 않으리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 김 일성에 대해서 용서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만약 우리의 형제가 우리와 대적하면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북한이 우리와 대적하는지 어떤지 곰곰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한반도를 빼앗긴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 내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북한과 화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대화가 것처럼 무의미하게 끝나버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전정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예물을 제단에 맡겨두고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온 후에 예물을 제단에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십일조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 많은 현금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형제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그와 다시 화해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으나 우리는 적어도 빨리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해할 기회가 지금 당장에 온다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존심과 거만함으로 그들을 경멸하지는 않으려는지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한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의 25퍼센트가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린 사치스럽게 생활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연히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남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가 부족하고 무관심한지를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중략〉……한국교회가 오늘 날처럼 재물을 허비해 버린다면 앞으로 북한의 형제들을 도와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기회가 오면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재물을 아껴 쓰시다.

그리고 북한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되도록 많은 현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째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6절을 보면 북한 당국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한 정부가 제의한 평화협상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진실한 남북대화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한국교회가 오늘날 처럼 재물을 허비해 버린다면 앞으로(통일 되었을 때) 북한의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가장 악랄하게 다스렸던 므낫세왕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중에 누가 “저 높은 구원 받기 글렀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종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중보기도 뿐입니다.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양쪽의 대표들이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김 일성 형제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물러났을 경우, 그가 그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 앉도록 할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가 죽은 후 그를 잇는 후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서 그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해야합니다. 성경 역대하 33장 11~13절, 18~19절을 읽어 보십시오.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가장 악랄하게 다스렸던 므낫세왕도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저 높은 구원 받기 글렀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종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중보기도 뿐입니다. ……〈중략〉…… 성경 밀반자(密搬者)들을 위해서도 기도 하십시오. 또 중공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그곳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드레 형제가 보내온 책자에 보면 김 일성이가 국민들에게 지상천국을 약속했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 중에 김 일성이가 약속한 천국이 김 일성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김 일성이가 준 것은 굶주림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으며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중공의 교회가 비밀 선교사를 북한으로 파송하여 복음을 갈망하는 북한의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였으면 그 다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 하지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인본주의 그리고 반성경적인 정부들이 우선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들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선으로 가득 차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있는 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범죄한 후 2백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셨고 유다가 회개하도록 또 다른 15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리이스의 지배를 받기까지 2백년, 또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2백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천 8백년 동안 홀으시기까지는 그와 같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하메드, 타이머레인을 보내시고 또 백년 전쟁 그리고 현재는 공산주의를 일으킨 것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우리를 멸절시키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또 우리는 목자도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온 북한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들을 회개케 하여 부흥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압제받는 교회들을 자유케 해주실 미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목자도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온 북한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새성전 시대의 전도와 선교



오 치용 목사
(충현세계선교회 지도)

전도와 선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고, 주님의 피공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하고 이 권능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I. 전도와 선교의 임무 및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요 6:63)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요, 진리시요(요 1:14)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먹고 영적인 거듭남과 생명의 성장을 얻게 된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한 땅끝까지 널리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복음전파! 이것은 곧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임무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 전수되어 왔고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 수행해 왔고 또 수행하려 한다.

예수님은 복음전파를 명령하시면서 그 방법(Way)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다. 복음전파가 중심적인 사명이라면 “오직 성령”은 그 중심적인 방법이다. 이는 성령을 무슨 비인격적인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임재와 그분으로부터 받는 권능이 복음전파의 최선의 길(Way)이란 뜻이다.

복음전파는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방법이다. 성령님의 권능은 목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전파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전파와 성령의 권능 사이의 관계를 놓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내용을 올바르

게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온전히 받아야 할 것이다.

전파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라야 한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탈선하는 어떤 운동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에서 이탈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바쳐야 할 것이다(행 20:24). 전파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권능”이라야 한다. 하나님께의 거룩하신 성전,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속 4:6). 성령의 권능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전파는 중단되기 시작하고, 비록 형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인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만을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 권능에 의한 인간 복음의 사자가 되고 만다.

II. 복음과 권능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증거를 하게 된다(계 1:3).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이 뜨겁도록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눅 24:32).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은 성령의 임재로 되어진다. 성령의 임재는 전혀 약속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요, 그 분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인격적 역사로 임한다. 따라서 그 권능도 인격적 권능이지 물리적 권능이 아니다.

인격적이라 함은 그 권능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요, 어떠한 권능이든지 성령의 권능이라 하면 그곳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고 있어야 한다(갈 5:22)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마 7:20).

III. 오직 성령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큰 과제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준비하는 일이다(잠 25:11).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모든 경우를 파악하고, 또 좋은 경우를 만들고, 금사과같은 복음 말씀을 놓는 일이 과제이다. 우리는 이때문에 이 일을 할 주인공을 찾고 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아로새긴 은쟁반을 마련하며 누가 금사과를 놓겠는가? 누가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겠는가? 이는 오직 성령이 하신다.

우리는 새성전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직과 인원과 설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특히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최선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설비를 필요로 한다.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마련하고자 함과 같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의 주인공인가?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오직 성령”이라고 하신다.

IV. 성령임재의 양면성

새성전 시대의 주인공은 여전히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제일의 주인공으로 모셔져야 한다.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며 환영하며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괄목할 증거를 보이시기를 기뻐하신다(행 2:1~4).

성령 임재 사역의 괄목할 특징들(Signs)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성령의 갓가지 은사들이 온전히 나타남을 기뻐해야 한다. 성령 은사의 어느 것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되며 경시해서도 안된다.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도 이것을 함부로 잘못된 역사인듯 취급해서는 안된다(마 12:32).

한편 성령의 임재는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성령은 인격이시므로 때로는 조용히 임재하신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며(갈 5:20) 일곱 가지 은사가(롬 12:6~8) 나타나도 성령님의 임재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둔해서 그렇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것

이 아니다. 성령님은 모든 면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만 나타나실 수 있다(고전 14:23).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 관용할 일이다. 또한 나는 먹는 자요 너는 연약하여 먹지 않는 자라고 자기 은사를 중심으로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렸을 때 암전하나 커서 활발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에는 활발하나 장성해서는 점잖은 사람이 있다. 모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일률적인 생산공장으로 취급하지 말 것이다.

V. 성령임재의 척도

그러나 이같은 말은 성령의 권능이 역사함을 필수적인 상태로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어떤 형태로건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 즉 교회의 내적성장(Internal Growth) 양적성장(Expansion Growth) 연장성장(Extension Growth)을 가져온다.

만일 이 세 가지 어느 면에도 결핍이 온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역사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내적성장은 질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보여진다. 교회의 양적 성장은 숫자적인 성장, 시설의 확장을 아울러 포함한다. 시설은 신앙의 입은 옷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연장성장은 국내외의 광역적인 교회 개척, 선교사 파송 등으로 보여진다. 북한선교, 내지전도, 세계선교는 다 이같은 차원에서 광역 목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일이다. 교회는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같은 성장을 보여 주어야 하며 만일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이 주춤거리거나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권능이기 때문이다(행 13:1~3).

VI. 우리의 할 일

1. 기도운동: 만일 질적·양적·선교적 성장, 어느 면에 지체함이 없으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일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뚜렷한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다(행 5:14).

우리는 성령충만을 기도해야 한다.

2. 그릇의 갱신운동: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든 연구·조직·행정·인사·설비가 모두 헛되고 만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면 모든 것은 훌륭한 기능을 발휘한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듯이, 12사도의 결원을 보충하는 조직관리를 한 것 같이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것을 성령님은 쓰시기 때문이다. 준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거절치도 말 것이다.

새 술을 위한 새 부대(마 9:16~17)!

새성전 시대의 거대한 일을 놓고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인한 복음증거!

이것이 새성전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입에 오르내릴 기도제목인 줄 믿는다.

3. 지도자 종합훈련: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모든 성도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도자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전도·선교·각 방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받은 증인들일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도와 선교(북한선교 세계선교)에 있어서 주요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 양성되고 훈련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주요 지도자들은 때때로 훈련을 통하여 더 큰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내적·양적·선교적 성장은 사도행전 1장8절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4. 광역 목회협력- 전도와 선교 분야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인데, 이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주변 신앙동지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개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도 말 것이요, 성장하는 교회는 자기유익만을 도모치도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성전 지역에 가서, 주변 지역의 교우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가 개최하는 행사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그 주제 중에는 전도와 선교가 좋은 주제이다. 또한 세계선교의 큰 과업수행은 불가불 지역 교회간의 협력이 있을 때, 최선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같은 지역교회의 협력은 복음 안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전도는 물론 세계선교도 보다 힘찬 속도로 전진될 것이며 개교회의 성장도 아울러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항상 봉사적인 자세가 되길 원하면서 강남으로의 이전을 수행하고 있다.

VII. 내일의 선교도시를 내다 보면서

전도와 선교, 북한선교는 우리의 지상 과업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역을 바라 보면서 새로운 과업들을 앞에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이 선교분야에서 필요하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기를 준비하고 계시다. 88년에 세계곳곳에서 외국인들과 교포들이 찾아 올 것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교회들은, 이 때를 선교의 적시라고 보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일정기간 같이 기거하고 돌아가서 흩어진 후, 한국의 세계선교를 위한 힘있는 협력자들이 될 수도 있다.

강남지역 교회들은, 특히 미리 서로 협조하여 외국인들을 국가 및 지역별로 담당하여 교우들의 가정과 연결시키고 미리부터 서로 교신하여 교제하고, 국내에 와서 머무는 동안, 그들을 선교동지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에 겸손히 봉사하며 강남지역의 선교적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세우시는 도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군전도는 민족복음화



박 동실목사

(전도위원회특수분과)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회 군목부 주최, 전도위원회 후원으로 본교단 소속 군목연구발전회의가 미 8군 휴양소에서 있었다.

목적은 민족복음화를 위한 황금어장인 군대에서 군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본교단 소속 군목들의 사명감 고취와 자질향상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개발로 필승 군인의 신앙전력화를 구축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강사는 신 성종목사, 이 성근목사, 정 성구목사, 장 정일목사, 박 동실목사, 박 용삼박사, 그리고 총회 여전도회 회장이었다.

과거 복귀에 의해 저질러진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피해는, 통계에 따르면 국군은 전사 415,004명, 부상 428,568명, 행방불명 323,292명, 유엔군 전사 32,693명, 부상 119,336명, 민간은 사망 244,763명, 부상 299,625명, 고아 59,000명 의용군 징발 400,000명, 피학살자 128,936명, 미망인 200,000명 등, 당시 피해액만도 410억5천만불에 달했으며 전쟁이 휴전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처는 아물지 못한채, 동쪽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막는 길은 모든 민족의 복음화에 있으며 또한 군복음화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은 조직된 단체로써 복음화가 용이하고 행동통일의 일원화된 점과 격리된 집단으로써 복음의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심리적·정신적 갈등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지적·정신적·육체적으로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며 이들의 복음화는 전역(제대) 후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역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복음화에 중요한 곳인 것이다.

이러한 복음적 요구에 응해서 복음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군목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해공군 전 장병을 신앙으로 전력화하여, 국가관과 사생관을 신앙의 정병으로써 확립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기진작시켜 정신전력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군목의 직능은

- ① 성직적 직능(목회활동, 종교교육, 신자관리)
- ② 교육적 직능(인격지도, 도의교육, 정신교육)
- ③ 봉사적 직능(보호사명, 선도위로 및 방문활동, 상담활동)
- ④ 참모적 직능(특별활동참모)

군목의 활동은 신앙을 전력화하여 신앙심을 필승의 신념으로 승화하며, 내용은 사생관 확립(종교), 가치관 확립(교육), 건전한 내무생활(선도), 전력의 극대화(참모), 국민의 유대강화(대민)에 있다.

· 군무에 대하여

군대는 한해 20만이나 되는 한국의 건강한 청년들이 입대하고 제대하는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많은 청년은 국가의 주춧돌이 될 것이므로, 군대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민족복음화의 큰 몫을 군목이 담당하

게 된 것이다. 장기나 단기 군목 모두 열심히 군복음화에 힘쓰고 있지만, 장기군목은 더 많은 지휘관과 사병을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사명감이 투철한 장기군목이 늘어나도록 후방교회는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제대 후 장래성이 희박한데 대한 불안, 타 교단에 비해 교통수단이 거의 미흡하고, 이동으로 인한 군무의욕 상실과 타 교단에 비해 입관(목사 안수)의 지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목사 안수의 늦어짐에 따라서 진급도 늦게 되므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 후방교회의 지원

군복음화는 군목은 군목대로,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사병은 사병의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효과가 많을 것이다. 총신에서는 군목지원자가 많아져야 하며, 총회 차원에서도 군복음화를 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위로하고, 지원하는 총회 군목부가 되어서, 활발히 움직여야 되겠다. 각 교회 내에서 신앙인으로서 윤리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교회 활동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고, 군목과 군종사병을 돕고 또 위문 등을 통해 복음화에 힘쓴다면 군복음화는 결국 민족복음화를 이루는데 매우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자녀를 군에 둔 부모님께

아직도 자녀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할 때에 눈물흘리는 부모가 있다. 내 아들이 매맞지나 않을까, 또 고생하지나 않을까 등등의 걱정과 눈물보다는 오히려 자녀가 신앙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를 위해 눈물흘리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군대란 어려움을 참는 인내를 배우는 곳이며, 옛사람(상관)을 섬기는 법과 그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며, 능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젊은이로 성장케 하는 곳이

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하도록 신앙을 단련시키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며,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입대할 때 3년 동안 착실히 충성된 직분을 다 하도록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믿지 않는 전우에게 전도하도록 권고하고 뒤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전군은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국군은 십자가의 정병으로써 복음으로 남북통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제대하면 각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역군으로 일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제목〉

- 군복음화를 위해
-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해
- 장기군목의 진급을 위해
- 군복음화에 방해를 받고 있는 군목을 위해
- 교회를 핍박하는 지휘관을 위해
- 군복음화에 헌신할 총신 군목후보생들을 위해

말일에 될 일이 무엇이나

(사 2:1~4)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신 말씀이 두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성격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말일에 될 일을 보여주는 말씀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사 2:1)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란 말에는 다음 네 가지의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1) 말씀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에 떨고 조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2) 말씀에는 ‘부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안된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철없는 자식에게

“애, 이렇게 해라”

권고하시는 부탁에는 사랑이 있고 아울러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은 얼마나 좋고 지혜로우신 말씀입니까? 그 부탁만 잘 들으면 길가는 나그네가 길 잃어버릴 걱정이 여찌 생기겠으며 성공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3) 말씀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마!”

“너희는 십의 일을 바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에는 ‘이번에 우리가 당선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당선되고 나니 선거 운동을 할 때에 하던 약속은 다 잊어버립니다.

또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인간의 약속은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4) 말씀에는 ‘게시’라는 뜻이 있어 말일에 될 일을 보여 주십니다

게시라는 말의 뜻은 「덮어 두어서 아무도 볼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봐라” 하고 보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덮어 놓으신 것을 누가 열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열어서 보여 주셨

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답답하지 내가 보여주마” 하시고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말씀은 이상 네가지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르는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찌될런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자신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말씀만 따라 가야겠습니까.

2. 말일에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사 2:2)

2절 첫머리에 “말일에” 말일이라는 말은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날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말일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1)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사 2:2)

‘모든 산’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라는 뜻인데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는 뜻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명령하는 지도권을 가지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200

여년 간 계속하다가 앗수르 나라에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남쪽 유다도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절반은 망해 없어지고 절반도 거의 망할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는 날이 온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3)

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수많은 열국 백성들이 자원해서—누가 가자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요 자발적으로—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대나라가 이렇게 지지리 못하고 약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세계 각 나라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미친 녀석, 별소리를 다 하네. 다 망해가는 나라 예루살렘으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몰려 와서 말씀에 순종해? 쓸데 없는 소리를 다 한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지 1900년이 지난 오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치고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치고 ‘나 한 번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계에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간절히 사모해서 미국, 화란, 예루살렘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세계가 제일로 흠모하는 도성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날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첫째 해에는 대환영을 받으셨고 2년째부터는 핍박도 곁하여 받으셨고 3년이 지나신 후에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갖은 모략을 당하시다가 악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은 다 망했으나 예수님의 복음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는 당시의 로마 성읍을 개발하여 초 현대식으로 건설하고 싶는데 가난뱅이 집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라! 저놈의 집을 전부 다 불을 봐 버리고 불구경도 실컷하고, 저 가난뱅이 집 전부 다 없어진 다음에 도시 계획을 한번 내 마음대로

로 해보겠다”

하며 폭군 네로는 자기 부하 군인들을 시켜서 가난뱅이들이 사는 집, 좁은 골목에 불을 질러 왔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불이 한 집 두 집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시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나?

“옳지! 네로왕이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더니 불을 다 질러왔구나”

“뭐야? 왕이라는게 백성을 돌아보는 일은 안하고 불이나 질러? 못되 먹은 것”

그래 백성들이 네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야단을 치니까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못 되먹고 악독한 네로 황제가 흥계를 짜고 말합니다.

“내가 왜 불을 놓겠느냐? 우리 군대가 왜 백성에게 불을 질렀겠느냐? 이번에 화재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쟁이를 다 잡아라”

이렇게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장작더미 위에 꿈뽕 묶어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서 술을 마시며 좋다고 한 자가 네로입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서 로마 나라가 신자들을 250년 동안이나 핍박을 했습니다. 10년 20년도 무서운데 250년 동안이나 핍박했습니다.

250년이나 핍박하게 되면 예수쟁이는 세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늘고 많아 졌습니다.

결국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리하여 예수교는 주후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정복하고 뽐내던

로마는 망해 없어졌으나 예수교는 천하에 왕성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영영 왕성하리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절반이 망해 없어지고 남쪽 유다도 지지리 못나 보이지만 앞으로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리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때에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도 믿겠다. 너도 믿겠다 하고 예수께서 나신 곳을 향하여 찾아올 것이다.

이같이 메시아의 초림 이후에 땅 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을 설명 하였습니다.

(2)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
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4)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복음이 세계에 퍼지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전쟁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한 지가 수천년 됐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회의니 무슨 국제 회의니 하면서 떠들어 대더니 20년이 되나 마나 할때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UN 총회가 만들어지고 다시는 싸움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싸움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이 싸움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을 만듭니까?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전쟁은 그만큼 무서워질 뿐이지 싸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의 가슴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에는 꿀이 흐르고 눈에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땀만 하는 연구가 전쟁 연구만 하는데 싸움이 안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언제 끝나고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싸움이 끝납니다.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은 싸움을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서 오랫동안 평안히 잘 살려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의 몸은 풀과 같이 시들고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 살겠다하는 사람의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인간의 생명은 풀결의 이슬처럼 떨어집니다. 가만 뒤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개가 지나가다 꼬리만 쳐도 떨어지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같이 가만 와 뒤도 늘고 병들면 죽는게 인생인데 못된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수천, 수백만의 생명들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 문명의 행들을 악마의 종도들이 쥐고 있으니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머님의 기도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잊어
나집에 돌아 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집에 돌아 갑니다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창 2:18).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삭·야곱·노아의 가정등, 경건한 족장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다.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육신생활만 돌아 볼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주는 것이다. 그 눈물이 어린 자녀의 마음을 적실 때, 그 한 방울의 눈물은 백번 매를 들어 때리는 것보다 천배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찬송은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경으로 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써 성어거스틴을 생각할 수 있다.

메마른 들과 험한산
갈바를 몰라 다니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님 기도 못잊어(2)

육적으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외로운 곳에서,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선명히 떠오른다.

내죄를 담당하신 주
새희망 비쳐 주시니
내기쁜 정성 다하여
주이름 찬송 하겠네

어머님의 기도 못잊어,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아온 기쁨,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 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천국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주님의 사랑-『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새희망 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찬송의 작시자 리지 디 아몬드(Mrs Lizzie De Armond) 여사는 1861년 펜실바니아주의 스와트모어에서 태어나 그 곳에 장로교회가 생길 때부터 초등부의 교사로 봉사하였는데 늙어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왕래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가까와 온다는 뜻은 지구덩어리가 심판의 불을 향하여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아지나' 그러지 마십시오. 심판 받으러 지구가 굴러 가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악독해 집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절개를 팔아 먹고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업수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세계의 존경받는 곳이 되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전쟁이 끝난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위태로운 세상에서 만년이나 살 것처럼 죄를 범하고 엄병덤병 대지 말고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중 나갈 신부로서 절개를 지키며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충성의 열매를 들고 마중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겠읍니다.



십 계 명

〈출애굽기 20:12~14〉

이 종운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십계명 가운데서 네 가지 계명은 가정과 관련된 계명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며, 또한 가정을 향하신 귀중한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제 5계명만이 가정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요,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제 10계명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릇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다른 사람의 가정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계명에서 나타난 교훈이다.

이와 같이 십계명 가운데 네 가지 계명이 가정과 연관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신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같은 계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는 가정의 중요성과 귀중함을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다.

·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가정의 신성이나 중요성보다는 가정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게다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존귀성을 약화시키고 가정의 역사적 기원을 연구하는 것으로 가정의 신성을 부인하고 가정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벌어진 실험실에서의 인공수정에 의한 실험 아기와 인공심장을 고장난 기계 부품 갈아 끼우듯 만들어내고 기계처럼 수술해서 갈아 끼우는 일—은,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없게 하려고 전쟁 대리인을 만들어내어, 내 자식은 귀하니까 전쟁에서 희생을 면하도록 하자는 식의 일로써 생명의 존귀성을 파괴하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도전 행위인 것이다.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아버지 중심이나 어머니 중심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

며 또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느 한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다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는 일부일처제가 확인되는 말씀이다. 오늘날 같이 도덕적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이 시대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은 매우 깊은 진리인 것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정을 공산주의 사상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집단체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의 하나로만 본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의미를 제 5계명에서 먼저 상고해 보면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제도)라는 말씀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정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기뻐하셨

다고 했는데 인생을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은 인간의 삶의 기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의 자족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정의 최종적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가정의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7-30절에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른다.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유 기능을 허락하신 말씀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세번째, 이와 같은 명령은 결국 인간에게 주신 책임과 권위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사용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책임을 저야하고 둘째는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의무라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갖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 앞에서 책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가정에서 여자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남자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여자의 죄 가운데는 남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일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

물론 아담이 여자를 바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와에게 이끌려 다니고 죄에 빠진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잠언 31장 10-31절은 경건하고 덕이 있는 아내가 유명하고 능력있는 아내보다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부부의 도리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부부의 관계는

-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 피차에 신뢰하라
- 서로 돌보며 존경하라
- 서로 돕는 일을 하라

고 말씀하고 있다.

부부는 가정의 질서와 자녀 교육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인 것이다.

이 제 5계명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진리는

- ①가정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요
- ②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무겁다는 뜻이 있다. 무엇이 무거운가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무겁다는 뜻이다. 부모의 사랑하여 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이 무엇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들의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서 부모는 단순히 자기를 낳은 부모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9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를 영으로 나온, 부모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고로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을 형님으로 부모로 모시는 사람(딤후 5:1-7)과 나이 어린 사람을 아우와 자녀로 보살피는 성도(딤후 5:8)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며, 이 영생의 약속은 땅 위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중생한 새 생명의 질적인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피차 부모요 형제요 자녀로서 가정을 이룬 것이다.

· 제 6계명『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안락사, 낙태, 사형집행, 전쟁, 자살등-들이 모두 제 6계명과 상관이 있으며 이 6계명은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다. 요한 칼빈은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제 6계명은 정당한 형벌이나 자기 방어와 같은 것을 금한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파괴적 행동을 저지시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계속하였다. 부당한 폭행이나 구타나 또는 공격적 태도 등을 포함한 단어가 이 6계명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제 6계명의 말씀을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 글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요,

둘째, 적극적 의미로는 이웃의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할 수 있는 한 다투는 것을 금하고 다른 사람을 조력하고 특별히 억눌린 자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악한 것을 대적하며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제 6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다.

이 6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형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노하신 것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공격은 주님이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였으며 악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분노와 남을 공격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악과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에서 기인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 분개했고, 자신에 대한 멸시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원망을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님의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번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노하신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조차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주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살인자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을 우리는 더 이

상 갖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형제와의 화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셨다. 화목은 형제에 대해 분노와 미움을 없이 하고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이 6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생명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생명의 문제는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겸손이 지나쳐 '나같은 것이...'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자학적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째, 내 생명과 재산과 명예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명예도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윤리는 윤리가 없는 것이 윤리요, 절절한 법은 법이 없는 것이 법이다. 다시 말하면 법이 없는 것이(안 지키는 것이) 법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법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곧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법은 필요악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도 지켜주고 소중히 여겨주라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이다.

네번째,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생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진리이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내 생명이 타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씀도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생명이라면 짐승만도 못한 생명이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존귀한 생명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고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귀중한 삶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원이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인정해 가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금욕생활도, 자기 건강을 부인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살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 칼빈은 간접 살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거짓 종교, 가짜 목회자들은 이러한 위협으로 성도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정식품등 비위생적 식품과 마약과 독약 그리고 방탕한 생활과 정신적 병적행위와 격정적이고 무절제한 행위등도 바로 이러한 간접 살인의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하며 이상의 그물을 통하여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큰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못들었다. 그러나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말은 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걱정이나 무질서 무절제등이 바로 이러한 사건의 걸림이 됨을 깨닫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자졌으니,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명을 소중히 알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하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란과 정욕은 사랑에 대한 마귀의 위장전술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 특히 성도덕이 가장 위기에 처해 극

히 위험 수위에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이제 이 성의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혼율의 급증, 사생아, 미혼모의 급증과 불량서적 라디오와 T.V내용들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을 장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낙하산타고 하거나 수영장 결혼, 등산복 결혼, 수중 결혼, 동물원에서의 결혼 식등—장난으로 시작한 결혼은 장난으로 끝나며 이러한 결혼식에 대한 의미 상실등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문의 사회면을 매우는 대부분의 사건의 인물들은, 그들의 사생활이 매우 어지러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사생활부터 잘못되어 있다.

제 7계명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결혼의 신성이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와 그 결혼의 파파가 가져오는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 결혼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으로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기묘한 관계인 것이다. 이 가정은 순수해야 하며 결백이 요구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중한 제 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상실한 개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욕에 불타던 한 민족과 그 국가가 어떻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으며 파탄되고 타락되었으며 건강이 상실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민족이 저주를 당했던 사실을 삼손과 소돔과 고모라와 다윗의 경우를 살펴서 알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정의 제도를 말씀하시는 중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제 7계명이 가르쳐 주는 원리와 진리는

첫째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간음하는 죄인의 죄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의 신성이 유지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둘째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정욕에 자신을 함부로 내어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족만 진멸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 족속 가운데

창녀와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라(레 19: 19, 21: 9, 신 23: 7)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 8)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

음란과 정욕은 사랑에 대한 마귀의 위장 전술이다. 이 세상에서 순수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반면에 음란과 정욕처럼 이 세상에서 파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죄악이요 불살라 버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런 행위인 것이다.

정욕이 가지고 온 마음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순수한 애정과 고결한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고로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음욕의 시험이 다가올 때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 본을 야곱의 아들 요새이 보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정당한 남녀 사이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매력을 금한 말씀이 아니라 탐욕에 불타는 정욕과 강간하고픈 충동과 그러한 상상에 빠지는 것을 금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세째로, 혼외의 결혼(첩을 두는 행위) 또는 혼외의 정사를 금하는 말씀이다.

잠언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간음하는 일과 창녀와 탕부의 행위와 혼전 성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6장 26절의 말씀은 간음자와 음녀를 대함은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고있는 것과 같이 위험하며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에베소서 5장 3~7절은 이런 것들은 우리들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기 가정에서 가질 수 있다. 반면 행음하는 자는 가정에서도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상실케 되어 있다. 가정은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심부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부패하고 무너지면 그 사회도 그 국가도 타락하고 무너진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하

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네째로, 이혼문제와 부부관계에 엄격히 성결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신명기 22장 20절에 간음한 사람과는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못되며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신명기 22장 25~26 강간자를 죽이라

레위기 20장 17이하 근친상간자를 죽이고

신명기 22장 21절 창녀를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 결혼이후에 간음한자를 죽이라

레위기 20장 15절 짐승과 교합한 자를 죽이라

신명기 23장 8절 이런 자들은 개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은 구약의 말씀은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과 음욕은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셨다(마 15: 19, 19: 9 참조).

정신적 간음도 육신적 간음과 같이 취급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 7계명의 교훈은

①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하신 것이다.

자기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다. 순결은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신성을 유지케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

②가정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사랑이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위로하고 참고 견디면서 격려하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의 순결이 지켜지는 것이다.

③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용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의 명예나 자랑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사교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켜서 정결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죽음이 아니니라」

외 빛기 불탄자리엔
가슴 드러낸
웅덩이
아들은 어푸러져
흙을 쥐었다

갈라진 논바닥
갈라진 손바닥
갈라진 프로메테우스의 심장

빛 바랜 해골은
발 밑에 누운
젊은 군인의
피어린 등을 바라 보았다

구름은
갈라진 하늘 틈새로 잘
십자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아들의 얼굴 보이는 지부웅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늙은 손을 읽었다
「나를 믿는 자 안 죽고 살고
죽어도 믿었으면
죽음이 아니니라」

아들은
한 웅큼
어머니의 품을 훔으며
미소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뵈었다

M. Young

○○년 ○월 ○일

역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버스를 타고
논현동에 있는 새성전에 6명과 함께 도착했다.

새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예배실로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다. 개
구장인들이 온통 뒹굴며 장난을 해서 방식을
사방에 흩어 놓는다.

한참 실랑이를 벌여서 동그랗게 앉혔다.

“점심 안 먹어요?”

“나는요. 김밥 싸 왔어요.”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 한번씩 돌아 가면서
기도하자. 선생님이라 함치면 7명이거든. 7명
이 한마디씩만 기도하면 5분이면 될꺼야. 조금
만 참고 기도하고 점심 먹자?”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녀서 현금내게 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세
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안돼요. 맑은 날
씨 주세요.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일하는 아저씨들이나
뽀뽀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해 주세요. “하
는 A의 기도는 이쁘기 짝이 없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엄마,
나
신발
벗어도
돼?

신앙의 보수와 교리

중세에, 감추어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천년간 성경과 멀어진 중세 교회의 교리적 무지는 이단 사실의 난무·교회의 타락·성직자의 방탕 등을 가져 왔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지둔 가장 큰 수확은 교회들의 교리적 각성이다. 16세기 기간중 루터 교회의 어그스버그 신앙고백을 위시하여, 개혁파 교회의 헬베틱 신앙고백 I·II,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그 교리서 등이 잇달아 출현했고, 17세기에 들어서서 장로교회 신조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1646)이 채택되었다. 이와같은 신앙고백 운동은 역사적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여 철저하게 보수하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이러한 보수주의에 대한 반발로써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켓치 푸레이스」는

쉽게 그 시대의 일시적 영향을 받아 영적 부흥 운동을 가져오는 듯 하였다. 그러나 교리를 경시한 어떤 영적인 운동도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할래대학을 현대 성경비평의 거점으로 만들게 했고 슐라이델마헬의 주관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으로 내어주고 말았다.

객관적 표준으로써의 정통교리가 외면된 그곳에 주관적 온갖 이단 사실이 난무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18·19세기의 신학판도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여 주었다(김 의환 박사저 「도전받는 보수신학」 P13~14참조).

오늘날, 우리도 바른 기본적 교리의 신앙고백을 할 수 없을 때, 주관적인 자유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 바른 정통교리가 없이 스스로의 주관에 의해서 믿고 남에게 전하는 것의 해독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혼미한 세대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의한 객관적인 표준으로써의 정통교리를 좀더 확실히 알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켜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실>

□서울 및 지방교회 독자 제위께

그간 미약한 월간충현을 애독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씀과 편지를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월간 충현」은 충현교회 성도들의 탐과 정성이 어린 헌금에 의해서 출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본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고, 전도용으로 그리고 어려운 복지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무료 발송 배포하여 왔으나, 요즈음 개인적 인지에 의한 요구에 응하다 보니 개인적 요구량이 매월 100부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놓여 있어서, 본 월간의 발송문제(발송대상 등의 제문제)와 발행 부수의 조절등 재정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참조하고자하오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는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득이 배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 편집위원회 선정에 의해서 배포가 중단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반드시 판제 옆에 기록하여 「월간 충현 편집실」이라고 명기하여 주십시오

□내 용: 성명·교회및 직분·주소

본지구독사유: ①누구를 통해 ②왜 필요로 하는가?

□기 간: 1983년 6월30일까지

□신간안내

「어떻게 이단들에게 답해야 할까」

로버트 파산티노 탁 명 환 옮김

그레첸 파산티노

레이몬드 셰퍼 공저

이 책은 당신이 만난 이단종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된 복음 메시지의 진수들로,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당신의 집을 방문하는 이단자들에 대한 답변」에서, 저자들은 권위있고 읽기 쉬운 형태로 된 답변들을 당신에게 제시해 준다. 다년간의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당신의 집을 방문하는 이단자들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간결하며, 단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초판국, 70미색모조, 215면

2500원, 정음출판사

<월간충현>

월간 총련 전성상에 보냅니다
8. 4월 20일

월간 총련의 사무를 주관하여 사정합니다. 서로
일하는 것은 본래지만 월간 총련은 반대의 아니 감사하
여니문으로 하는 생각하며 진심으로 믿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가 있는 도록 되어 있을 것을 찾다가 제가
제가 권리에서 벗어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진심
한 사람의 목회 생활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음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의 전통
그것 밖에 더 할 수가 없어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하다 하면
전향과 성직에서 그 밖에도 나서는 차이를 알게 됩니다.
알게 하 성령의 약속이 주사 부활하시며 구원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안에서 신령을 기쁨으로 목회하며
기쁘게 신앙하며 지내며 과학이 지구 바로 위에
변형해 가는 것으로 인해 과학은 인간을 돕는
총련회가 5월에 총동원 당시기에 국제대회 무는
행사가 있으면 꼭 2주일에 걸쳐 있는 노예 기사
모임이 있도록 해서 주는 교회나 동종교
대회를 하고 대량 관할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총기로 대신 독립적인 독립행사 하는
구상중에 있는 노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총동원에 있으므로 전성비라는 것은 자양 과감히
안되는 것이 리스 바랍니다

E - 197A

[illegible]

총 동원 전도의 노래

1. 생명의 주님 아름다워서 사도 삼은 두리니
이백십 함께 두리니 위대 생명의 부른 전파로써

2. 기도의 은사 생명의 은사 능력이 받아 총동원하시
할렐루야 사탄의 은사 총인이 받아 전도하시

3. 이 땅만 세상 변화된다 환한 빛이 사탄 당하는지
우리 바깥에 전파되는 도망의 주를 전파로써

4. 주인의 형제 구역의 형제 아름다 뜻이 하나 되니
회리의 부름 구역의 부름 보자다 생장 무한하네

5. 전파하는 우리 아리마는 무사하여 "대선을 날" 이찬물이 주
이주왔네 보리라 지휘하기 작무하여 불렀음이니
이는 죽지한 자를 중생한 것이 이집니 일반영으로
보아니 전파가 돌아나서 환한 빛이 나로졌니 너무니
분발한 빛은 회리개니 위로 꽃샘날이었기에 도망
주를 걱정하여 주시 혼돈되지 않게 하는 것임이니 - -
주전 기원하시라니 사랑과 사랑 못알고 무관심으로 공로
주께로 흐른 사랑을 보아니 총인 기도 은사 공로가
있었나니 공로는 다시 노래 보았음이니

충헌 인히 귀하
본내 주신 원한충헌 사원은 간발나 보았습니다
꼭때라대내 인공 베풀을 재주와매 감사와 뵈움을
알렸습니다
국사님도 관제내 하전한 인히 신구 화합을더 거두다
관양내 관제와본을 지쳐 인히에 아랫제 줄은
관양 관제들을 보사 여한 감사하릴 상습니다
대우를로 대우하신 행로로 영문 상습니다 문장들은
관양 충헌은 본내국 화제내 감사 하릴습니다
그런말들은 여러번 인히 본국과 주함께 구하길엇은
말씀하 뵈습니다 함상 주에서 해라 주공중 명은
관주함습니다 위 인히하여도 계속적으로
관제내에 하제내에 인히하 하릴 말습니다 계속하길
가르코 부락드립니다
구주 함을 주신말들 주여말들 모든 재가
말사 관은 습니다 말들함만 계속 부락드립니다
관한 충헌은 관공로 보습니다 다함매로 주공함께
관하길은 습니다 계속 말들드립니다

25/2

$$\frac{1}{2} \quad \frac{1}{2} \quad \frac{1}{2}$$

민족복음화로 가는 길목에서

김 동렬 목사

눈을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본다. 기차는 고갯길이 힘에 겨운듯 추풍령을 넘는다. 철로가에 군데군데 집들이 눈에 띈다. 오륙년 전과 달리 이제는 초가 대신에 아름다운 색깔이 섞여 보기 좋은 기와 모양의 슬레이트 지붕이 덮여 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이많은 고목들의 잔상은 이 민족의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이 거의 없고 십자가가 우뚝우뚝 눈에 띈다. 주안에서 약속된 꿈많은 내일은 감사의 눈물을 흐르게 한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힐끗거리며 훑쳐본다. ‘오랫만에 고향을 찾는 타향살이 나그네’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차는 풍기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두산삼동까지 가자 하니까 운전기사가 두산교회에 까지 가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 풍기군 인구의 5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시는 은총을 감사드리는데 두산교회 앞에서 차는 멈추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흙 벽돌로 지은 전도사님 사택에 방을 정하고 여장을 풀었다. 좀 쉬고 싶으나 서울서 온 강사라고 인사가 대단하다. 정성껏 차려 주시는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강단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주여’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섰사오니 불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입을 열어 주소서’

월요일 밤 집회로부터 하루 세 차례의 집회시간이 계속되었다. 집회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니 밤 열한시가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배웅을 하려고 예

배당 안에 모여 있다. 성도들과 인사를 하니 서로가 아쉽기 그지없다. 처음 여장을 풀 때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끔은 웬지 서먹한 것 같기도 했으나 며칠 지나는 사이 얼굴을 익히고 정이 드니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연세 높은 권사님 한 분이 울음섞인 목소리로 손을 잡으시며 ‘목사님 언제 다시 만나지요’ 물으신다. ‘주님 허락하시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땅 위에서는 다시는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분명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인사를 하며 차 안에 몸을 실는다. 그들은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서있었을 것이다.

나는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주여 민족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내 조국 면면, 촌촌, 방방곡곡마다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민족복음화의 불꽃이, 북한선교의 불꽃이, 세계선교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풍성한 삶을 위해

최 정길 (새가정부 교사)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매일 매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피를 먹는 자가 자기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매시의 기도와 읽은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동생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고나서 동생의 소개로 몇 가지 책자를 읽으면서 기도의 힘에 대하여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 후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한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기도해야 될 사람의 수도 많아지게 되었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 매시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 되어져 갔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직장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모든 동료와 상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과 천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시작한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첫 말씀은 법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다는 것과 먼저 주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죽은 지식과 정함 없는 가치관 속에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만이 팽배해 가는 직장의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 먼저 나의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한 가운데

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정, 직장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순간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삶의 모든 부분을 더욱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다.

요즈음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내인 것 같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섰으나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단지 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보고에 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기도의 열쇠로 하늘을 향한 문을 열 때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 생각해 봅시다

하워드 · G. 헨드릭스지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육」에서

만일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좀 더 참을성을 요구하고 싶다면 그 자신이 먼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자녀가 좀 더 신중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이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진실을 부모가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그 진실을 제 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잊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 당할 때
그 모욕이나 실수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의 선한 행위가 나쁘게 말하여 질 때
당신의 소원이 어긋나고 당신의 충고가 무시 당하고
당신의 의견이 조소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어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랑의 침묵을 취하는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어떤 무질서나 불법이나 시간을 안 지키는 일이나
어떤 성가신 일에 대해 당신의 사랑과 인내를
참을 때 당신이 낭비나 어리석음, 영적인
무감각에 대하여 설 때, 그것을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음식이든, 돈이든, 기후이든, 사회이든
의복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떠한 간섭이
있을 때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의 대화 가운데 자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자신의 유창한 말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칭찬을 들으면 근질근질 한다던가
당신이 진심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의 형제가 잘되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형편이 아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없이
진심으로 그 형제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겸손하게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복종하며 당신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이 없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죽었는가?

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 한다.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토요일제외)

• 매주 수요일배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

• 차량운행코스 : 충현교회 → 신사동국민은행앞 → 영동시장 (대한투신) → 삼일자동차 (새성전앞) → 잠실배거리 → 송파 → 성남모란시장 (시외버스정류장) → 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 · 이천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 광주행 31번을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 (대쌍)>에서 하차.

〈주소〉

13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13472-2-4425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벨지움 - 김 성완 선교사

아이라 하지 말고, 가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김 선교사님께서 선교차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식을 보내오십.

- 1) 성경공부 및 주일학교는 은혜 중에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 2) 선교차량으로 선교사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심.

-기도제목-

- 1) 한국에서 오는 기술 연수생 (3개월~1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 2) 그동안 수고하시고 귀국하는 유 철환집사님의 가정과 미국으로 가시는 고 혜순선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후임자를 허락하시도록
- 3) 넓은 성전을 주시도록

○ 서독 - 육 호기 선교사

제7회 평신도 수양회를 고난주간에 라인강의 명승지 뤼데스하임 강변언덕 청소년 수양관에서 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브록 세 교회가 연합하여 장 경두목사님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고함.

- 1) 바르크 베이츠 목사님을 방문하여 비스바덴 교회 사역에 대하여 논의하심. (비스바덴 교회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신앙생활과 장례식등에 관심을 가

지고 양로원을 같이 운영함)

- 2) 4월 3일 세 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스바덴 교회에서 300명이 회집하여 드림.
- 3) 성도교회로부터 장 경두목사님을 통해 가족성경 100권 및 선교비 100불을 기증받으심.
- 3) 본 선교회에 어린이 찬송가 50부를 청원하심.

-기도제목-

- 1) 세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2) 한독찬송가 출판을 위하여

○ 애 굽 - 이 준교 선교사

보내드린 찬송가와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받으시고 감사의 소식과 함께 현지사역내용을 전해오심.

- 1) 3월 27일 카이로 한인교회 춘계성례식을 거행(학습2명 세례1명) 하였음
- 2) 4월3일 부활절 축하예배를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드림.
- 3) 4월16일 카이로 한인교회 4월 정기 기도회 및 성경공부 모임을 가짐.

-기도제목-

- 1) 뜨거운 여름철로 들어가는 현지에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2) 카이로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 3) 레바논을 비롯한 이라크, 이란

등의 중동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 인도네시아 - 서 만수 선교사

초등부어린이에게 담신과 함께 소식을 주심

- 1) 현지 교역자를 위한 세미나가 4월21일~23일 까지 중부자바 웅아란 갯새마네 기도원에서 임택권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은혜 중에 마침.
- 2) 오지사역에서 장년 17명과 어린이 7명이 결신하고 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기도제목-

- 1)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필요한 교역자 육성 및 지속적 성경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 2) 할렐루야 선교관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 3) 금년에 5개의 개척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한 스폰서를 위해.

○ 미국 - 김 영휘 목사

충현지를 라성교회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고 서로가 은혜를 받고 모교회의 소식에 감사를 하시다고 하심.

- 1) 계속되는 학업과 목회 양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 2) 사도님이 아들을 순산하셨으

며 사모님과 아드님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3) 전화번호가 변경됨 (213)664-5891

○칠레- 유 재일 선교사

1) 칠레어린이 주일학교가 은혜중에 부흥하고 있음.

2) 4월28일 토코빠자교회가 개척중 유리, 의자, 강대상, 대문 등이 없이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6개월 지원금과 의류3 상자를 지원함.

-기도제목-

1)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칠레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2) 현지 장로교회와 협력이 잘 되도록

3) 선교사역에 동역할 원주민 선교사를 위하여

○파라과이- 김 재창 선교사

기도제목

1)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2) 일시 중단된 교회증축과 계속적 부흥을 위하여

3) 파라과이 경제사정의 회복과 교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일본- 유 병세 선교사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식을 보내오심.

1) 4월3일 부활절예배를 마기신 교사의 평화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광미교회에서 드림.

2) 부인성경반에 3명을 더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3) 최근의 활동사진을 사진 6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심.

-기도제목-

1. 닫혀져 있는 일본인의 마음이 넓게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2. 중환자급 결신환자 "요시다"

씨의 신앙이 견고해 지도록

3. 외래환자, 입원환자에게 하는 전도활동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

○미국- 라성 충현교회

기도제목

1) 라성지교회가 영육간에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되도록

2) 아메리카 선교의 요충지로 발전되도록

3) 교회의 제직과 온 성도들을 위하여

4) 정 상우목사님의 수속이 원활하도록

○미국- 이 승근목사(뉴욕)

1) 은혜교회는 인근 성도교회와 연합하여 교회 명칭을 성도교회라 확정하고 새로 출발함

2) 차량을 구입하심

3) 선교가 잘 되고 있는 단체를 알아보고 있음

-기도제목-

1) 사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2) 하시는 학업이 잘 진행되도록

○본부소식

1. 5월27일 오후 5시 고 흥 중만선 교사 1주기를 맞아 자택에서 당회 장님께서 추도예배를 인도하심 충현선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교부의 협조를 받아 1주기 기념사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음

2. 휘튼대회에 참가하시는 당회장님의 일정은

①6월20일 서북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당일자 휘튼도착및 등록

②6월21일~7월1일 대회 참가및

강연문 발표

③7월2일 :워싱턴경유 라성도착

④7월5일 :라성출발, 귀국

3. 휘튼 83 선교대회 보고문 영역을 완료하고 대회 진행부로 발송

하였으며

"이것이 충현교회다" 소책자 원고 및 영역을 확정하고 인쇄준비중임(원고작성 및 영역을 위하여 오치용, 유국남목사, 정은표, 성주진전도사, 박용삼집사, 김양순사모(김경신전도사 사모) 테리파이 선교사 부부가 하셨습니다.)

4.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던 윤 태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교부 부지도로 임명되어 수고하시고 계심

5. 본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수고하시던 김 동표씨가 귀국예정이라고 함.

6. 브라질 강성철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브라질 선교보고를 보내 오심.

- 해외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시분- 주 수검선생 : 250,000원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레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12시로, 새신자 부실에서 세레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라성 충현교회의 앞으로의 사명”

지난해 11월21일 미국 라성(로스앤젤레스)YMCA 회관에서 그 곳에 사는 충현의 30명 성도들이 김영휘목사님을 모시고 라성충현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새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으로 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이 때에 해외에 최초로 지교회 라성이 세워진데는 세가지 큰 목적이 있다.

첫째로, 세계를 향한 충현선교의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역할이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에 지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다. 최근 나성지역은 미국 세계선교센터, 윌리엄 캐리대학,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분교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교단체와 신학교들이 모여 들어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구교회의 수백년간 선교역사를 통해 얻어진 귀중한 경험과 지식 뿐만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지금 얻어지고 있는 최신 선교정보와 연구자료들은 이곳 나성에서 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선교의 동역자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와 성도의 교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라성교회는 본교회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단순한 수집 뿐만아니라, 선교일선에서 진임받을 일꾼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교류하는 선교의 중재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본교회가 지향하는 건전한 신앙인격과 올바른 경건생활 교육의 산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해외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신앙생활도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방황과 혼미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본국에서와 같은 말씀과 바른신학에 뿌리를 내린 올바른 예배와 교육 훈련및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진정한 교포복음화의 기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라성충현교회는 해외교포 복음화의 전진기지요 시발점이다.

해외교포의 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절대적인 요청이요 또한 북한선교의 요람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교포의 절대수는 이제 재일교포를 훨씬 앞지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중에 약 반인 30만 교포가 라성 주변지역에 모여있다.

800여개의 교회가 있으나 복음적인 교회의 책임은 오히려 더욱 막중해지고 협력선교가 필요한 가운데, 우리 라성충현교회의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매우크다.

라성충현교회는 이미

1)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2) 한 마음 품는 교회

3) 서로 사랑으로 돕는 교회를

목표를 세우고 주정부의 정식인가도 받고 담임 교역자로 정상우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수속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립된 예배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교회와 함께 힘써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출발한 라성충현 지교회의 앞날을 위해,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의 뜨겁고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선교에 약속된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님 재림의 대방과 함께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충현세계선교회〉





교회 소식

- 2) 성령은
- 3) 성령의 명령은
- 4) 성령의 은사
- 5) 성령의 열매
- 6) 성령충만 받으려면
- 7) 성령충만을 계속 받으려면

김재균 송환창 정운석 박철훈
김종구 박용삼 최무길 박관영
김천채 김영근 오청수 차신득
윤광일 이영세 조인재 이창호
문홍구 김영길 김창옥 이상현

□ 경로잔치

5월7일 청년부 주최로 60세 이상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여러가지 순서 중에는 음식공배와 유치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프로그램 시간도 있었다.

하늘나라에 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날으는 훈련을 받으세요.

□ 총동원 전도

5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로써 5월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전도훈련이 있은 후 15일 전교인이 전도에 참여하였다. 5월29일은 새신자 환영회를 유년부실에서 N.M.C 선교단의 합창, 기념품 증정 및 다과회, 교역자 및 당회원 소개 및 인사 등의 순서를 한시간 가량 가졌었다.

□ 장로 피택

장로로 피택된 분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10>

□ 교육위원회

- *영아부는 5월5일 태릉 푸른동산에서 반별친교회를 가졌었다
- *선교부는 소양강에서, 초등부는 화양계곡, 직청부와 새가정부 경기도 광릉에서 교사 야외예배를 가졌었다
- *5월28일 장충교회에서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 오순절 성령강림성회

지난달 5월23일부터 2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오순절을 기리는 집회가 있었다. 강사는 조준상 목사(기도원 지도)로써 집회내용은 성령론으로서 아래와 같다.

- 1) 성령역사 없이는

각종통계

1983. 5. 1(매월 첫주 기준)

예	구분		남	여	계	총 세대수		4,304	
	주일 낮	I 부	214	419	633				
		II 부	511	1,078	1,589				
		III 부	426	785	1,211				
		IV 부	190	480	670				
		V 부	161	417	578				
배	주일 저녁		211	402	613	교인	남	4,446	
	삼일 저녁		157	356	513		여	6,235	
주 일 학 교	어린이 새신자부		26	22	48	총 수	계	10,681	
	영아부		237	195	432		세례입교	남	2,448
	유치부		158	165	323			여	3,895
	유년부		187	204	391	교인		계	6,343
	초등부		234	238	472		유아세례	남	590
	중등부		195	179	374			여	493
	고등부		150	160	310	계		1,083	
	대학부		58	77	135	학습교인	남	300	
	청년부		61	84	145		여	433	
	장새부		55	102	157		계	733	
	새례부		25	61	86	원입교인	남	1,108	
	장년부		47	325	372		여	1,414	
	소망부		134	47	181		계	2,522	
	직장청소년부		29	116	145				
	신교부		13	44	57				
	새가정부		18	31	49				
합계		3,497	5,987	9,484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5월의 새교우

● 1지구

중곡 4구역 변인수
왕십리2구역 이상조
도선 1구역 박이순
답십리1구역 박해정

● 3지구

화양 2구역 이점숙
금호3-2구역 배창욱
구의 2구역 최명희
장안 1구역 이창우
왕인A-1구역 이현영
하왕 구역 홍창재
홍익 1구역 강외순
금호2-2구역 김영환
돈촌A3-1구역 이상남

● 4지구

성남 구역 감안식
제기 2구역 김승욱
모진 구역 임선자
잠실4-1구역 심영숙
잠실4-3구역 김종숙
옥수 2구역 임정순

● 2지구

쌍문 4구역 이명환
잠위 1구역 강영자
변동 2구역 양호순
보문 1구역 김병호
보문 1구역 최남순
쌍림 2구역 안옥자
대치 구역 김기환
미아2-1구역 최규범
신당3-1구역 조영란
신당2-2구역 조승제
창동 1구역 성현욱
안암3-5구역 안철우
안암3-5구역 나영실

미아5-1구역 조기택
신당 2구역 최석순
석관 2구역 황민영
하월곡1,2구역 허 양

● 3지구

삼성 1구역 박종순
아현 구역 추명선
산림 구역 최준자
대현 구역 임명환
신사 구역 이동선
신문 구역 김정순
명륜 3구역 김민곤

● 4지구

도화 2구역 최영근
인현2-3구역 성문용
양재 구역 고선희
개나리2구역 강모형
역삼 2구역 김치웅
염리 구역 황옥림

망원 1구역 김자임
논현 1구역 김현숙
성산 1구역 이수학
당산 구역 신동주
오장 1구역 조원병
오장 2구역 이주상
공덕 구역 성학순
충5-2구역 이필양
진달래구역 안영일
인1-4구역 김지영
신사3 구역 정혜경
개포 1구역 김기철
여의 3구역 권철

● 5지구

한남 1구역 박종삼
한신13구역 최성희
신림 3구역 차숙희
방배 1구역 이범두
대방 구역 김태화
봉천7-1구역 장철규
문래 5구역 김장훈
철산 구역 박지연
시외 구역 김신철
노량진구역 신복순
독산2,4구역 지규성
한남 2구역 한영덕

결혼

· 임세규군(초등부교사 김태건권사 아들)과 신주영양(초등부교사) 5월 2일

· 문용기군(문병량, 주옥환집사 아들) 5월 3일

· 김상열군(김원선장로, 김옥래권사 아들)과 채은실양(대학부 반주) 5월 3일

· 이성훈군(이하영집사, 민전식집사 아들) 5월 5일

· 이효상군(이용선장로, 박순봉권사 3남)과 민경애양(L.A.교회 민종식장로 조종숙권사 장녀) 5월 6일

· 이명극군(백재현씨 아들) 5월 7일

· 박채경양(김진홍씨 장녀) 5월 7일

· 양승수양(박봉주권사 5녀) 5월 10일

· 변장재군(변병순씨 박대화집사 아들) 5월 12일

· 박원영군(청년부회원 윤지3구역)과 안선자양(제2성가대원 박귀녀씨 딸) 5월 14일

· 이대길군(교회 도서실근무 총무로구역)과 김자애양(교회 교육위원회근무) 5월 14일

· 윤영섭군(이승현장로 정연화집사 2남) 5월 18일

· 김재환군(김기열집사 최영환집사 아들)과 한선애양 5월 20일

· 이종희군(도곡구역)과 송희명양(제3성가대원 송경수씨 반정현집사 딸) 5월 20일

· 최기봉군(주교교사 권순자권사 아들)과 정미라양(주교교사 정태훈씨 2녀) 5월 20일

· 김삼춘군(번목3-2구역)과 광화자양 5월 20일

· 이승구군(이석근씨 유정일권사 아들)과 장정연양 5월 21일

· 신동범군(천호구역)과 박현숙양(송인구역) 5월 21일

· 조명숙양(조영길목사 매제) 5월 24일

· 김은백양(제3성가대 반주자 김재명집사 김능실집사 장녀) 5월 24일

· 최윤희양(이정자권사 딸) 5월 25일

· 김성식군(청년부원 구의구역)과 감영애양(신사구역) 5월 26일

별세

· 이명업씨(장위1구역) 4월 26일

· 주윤하씨(개나리구역 최경숙권사 부군) 4월 28일

· 조윤분씨(최정옥집사 모친) 5월 19일

· 김진영씨(송군호선생 모친) 5월 19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6월의 행사

◇교회

3일/정기당회
5일/헌혈
10일/전체철야기도회

◇전도위원회

10일/여전도회 월례회
12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13일-17일/동어촌교역자수련회
26일/전도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26일/교육위원회 월례회
28일-30일/교사단기훈련

◇자산관리위원회

19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5일/정기제직회
12일/권사회 임원회
17일/지구별모임 교육훈련
26일/구역권찰회의

◇재정위원회

5일/재정위원회 월례회

◇건축위원회

26일/건축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5일/월간 충현 6월호 발행
19일/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	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1983년 6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6월호

제11권 제6호

통권 제111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6월 3일 인쇄

1983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김	창인
편집인/윤	명식
주간/김	영구
편집부장/문	영화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274-2171-2172

편집후기

제법 서늘한 아침
출근하여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향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사무실에 놓여있는 방향제의 향기였다.
갑자기 교회문 옆에 라이락 꽃향기가 연상되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아침 공기를 타고 흐르던
라이락 향기는 웬지 폐부 깊숙히까지 상쾌하게 하였다.
무더위 향내음은 악취와도 같이 느껴지는데
시원한 아니 그보다 좀더 서늘한 공기속의
향내음은 왜 그리도 신선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월간 충현이 나올 때마다 이틀씩 몸살을 하곤 하는데
이 향내음은 피로를 가시게 해준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하늘 향한 일엽편주

가슴 속에 슬픔이 고였읍니다
억눌린 삶의 몸부림에서
손들고 나아와
그 옷자락 부여잡고 애통하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의 침묵
그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기다림과 인내는
그 분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심인가
내 뜻과 고집으로 풀기 어려운 방정식은
몸살을 앓게 하웁니다

주님이시어
가슴 한 모서리
정함없는 이 마음 잔잔케 하옵소서
흔들리는 이 마음 나무라지 마옵소서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치 마옵소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오니
발길 돌리지 마옵소서

웃음 팔고 몸 팔던 기생 라합이
약속의 붉은 줄 드리우고
구원을 얻었사옵고
유월절 문설주 피를 보시고
내가 넘어 가리라
언약 하셨사온데
나 비록 죄인의 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믿음으로 적시오니
의롭다 인쳐 주시옵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하사
생명의 말씀 밝혀 주옵소서
여호와를 영영히 전하리이다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인도하심에
갈수록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은
다함 없는 간구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한 구석 마음에 드리운
방황과 불안의 그림자
꾸짖지 마옵시고
하늘 향한 일엽편주
힘 다해 저어가오니
모든 날이 지나기까지
순풍으로 인도하옵소서

<정 인선>